

# 대학생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

김현순

단국대학교 교양교육대학 교양학부

Hyun-Soon Kim(khsbcr@dankook.ac.kr)

###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도, 충청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673명에게 진로결정 여부와 진로 관련 변인들의 영향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결정 집단과 진로미결정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성별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이 아니었다. 둘째,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학년, 전공만족도, 진로개발역량은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나, 학업성취도, 대학생활적응, 진로적응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었다.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진로를 결정할 확률이 2배 이상 컸으며, 전공만족도가 1단위 증가하는 경우 진로를 결정할 확률이 1.9배 커졌고 진로개발역량이 1단위 증가하는 경우 진로를 결정할 확률이 5.1배 커졌다. 이러한 결과들은 대학생의 진로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진로개발역량을 증진 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중심어 : | 진로결정 | 학년 | 전공만족도 | 진로개발역량 | 대학생 | 로지스틱 회귀분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 For this purpose, 673 college students in four - year colleges in Seoul, Gyeonggi- do, and Chungcheong - do were surveyed and analyze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exe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areer decision group and career indecision group. Seco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s of variables affecting career decision. Grade,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were variables tha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decision of college students. However, academic achievement, college students' adjustment, and career adaptability were not significant variabl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 order to support career decision of college student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students majors satisfaction and improve career development capability.

■ keyword : | Career Decision | Grade | Major Satisfaction |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 College Students |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

\* 본 연구는 2017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 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8년 09월 20일

심사완료일 : 2018년 12월 04일

수정일자 : 2018년 12월 04일

교신저자 : 김현순, e-mail : khsbcr@dankook.ac.kr

## I. 서론

직업은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삶의 방식과 질을 결정하므로 직업의 선택과 진로의 결정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이다.

대학생 시기는 진로결정을 구체화하고 이를 준비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일단 대학부터 들어가고 보자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한 충분한 진로 고민 없이 대학에 입학하고 대학생이 된 뒤에야 중·고등학생 시기에 해야 할 진로 고민을 압축해서 경험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더구나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국내의 높은 청년 실업률은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발달 과업인 진로결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진로준비행동이 미뤄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진로 결정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진로 및 취업 준비에 동기를 제공하고 내용을 구체화해 준다. 그러므로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적극적이고, 진로결정수준이 낮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1][2]. 또한 진로준비행동은 그 시작 시기가 빠를수록 취업 성공 확률이 높고, 진로준비행동에 충실할수록 첫 직장 만족도가 높아진다[3]. 반면에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는 진로선택에 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진로준비를 위한 동기 부여를 저해할 수 있다.

이처럼 진로결정은 대학생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선결과제이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탐구하려는 연구들이 이어져 왔다.

다수의 연구들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고 이들을 변화시켜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진로결정수준과 관련된 변인으로는 흥미, 가치, 능력, 욕구, 자아정체성, 성숙, 동기, 에너지 수준, 의존성, 불안, 자존감, 사회 경제적 수준, 성별, 부모의 소득, 의사결정 양식, 통제 소재, 성격 등 30여 개에 달한다[4].

기존 연구들은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그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변인들에 대해 반복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진로결정에 미치는 변인

의 효과에 대해 일관된 결과를 도출해 내지는 못하였다[5]. 이는 기존 연구들이 몇몇 변인들 간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는 데만 집중하여 일부 변인들 간의 관계는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들을 한 번에 투입하여 그들의 영향을 분석·비교하고자 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로 성, 학년, 전공, 학교적응 등의 변인을 분석하였다[6].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변인에 더하여 진로적응성과 진로개발역량을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선정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 직업 세계의 특성을 반영한 것인데, 지난 몇 세기 동안 직업 세계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 이전보다 고용과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세계화와 기술의 발전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훨씬 더 잦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등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였다[7]. 특히 세계금융위기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속화된 직업 세계의 변화는 이제 예측하기조차 어렵게 되었다. 진로적응성은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일의 세계와 자신이 처한 환경의 요구에 대처하는 준비도이며[8], 개인의 생애 동안 일어나는 여러 진로전환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이며, 진로결정, 직업으로의 전환, 직업적응을 위한 준비도[9]이기 때문이다. 또한 진로개발역량은 단편적인 진로정보의 획득이나 일회적인 진로결정에 그치지 않고, 진로와 관련된 행동, 가치 및 태도의 변화를 지향하여 향후 삶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진로개발의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능력[10]으로 급변하는 미래 직업 세계에서 살아갈 대학생에게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기 때문이다.

대학생의 진로결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또 다른 방향의 연구들은 특정 전공 학생들의 진로결정 수준을 조사하거나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집중하였다. 이런 연구들의 주요 연구자의 관심과 소속에 따라 특정한 진

공 학생들의 진로결정 수준을 조사하거나 변인 간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는데 집중하여 특정 전공 학생들의 진로결정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으나 각 대학과 학과 특성 차이에서 오는 각 변인의 인식을 고려하지 않아 면밀한 시사점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11]. 그러므로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대학과 학과의 학생을 표집하여 대학생들의 보편적인 진로결정 수준과 관련 변인의 영향을 규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기술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표집 지역을 확대하여 연구 대상자의 수를 늘릴 뿐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 자주 검토된 연구 변인 외에 급변하는 직업 세계의 요구를 반영한 변인도 연구 변인으로 투입하는 연구 설계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독립 변인들은 진로결정 집단과 진로미결정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본 연구의 독립 변인들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 학년, 학업성취도,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진로적응성, 진로개발역량을 설정하였다.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진로결정 그리고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진로결정과의 관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진로결정

진로결정(career decision)이란 일반적으로 현재 상태 이후에 직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설정했음을 의미하는데 특히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진로결정은 전공 선택에 대하여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

또는 졸업 후에 종사할 구체적인 직업 분야를 선택하였는가를 의미한다[12]. 진로결정 수준은 진로결정이라는 개념에서 파생된 것으로, 개인의 진로결정이 어느 한 순간에 절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진로결정을 확신의 정도라는 관점에서 조망하고자 하는 개념이다[13]. 따라서 진로결정수준이란 자신의 전공 및 직업의 선택과 관련된 확신의 정도로 이해할 수 있으며 확신의 정도가 높은 상태를 진로결정으로, 확신의 정도가 낮은 경우를 진로미결정으로 개념화하였다.

진로미결정은 두 가지 하위개념을 포함하는데 하나는 단순한 진로미결정으로서 상황적으로 혹은 발달과 정상 진로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를 뜻하며, 다른 하나는 만성적 무결정으로서 생활과 행동 전반에 걸쳐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을 보이는 것이다[12]. 대학생 시기에 진로미결정 상태가 길어진다면 취업을 위한 준비 또한 늦어지거나 어렵게 되어 그 이후의 삶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2. 진로결정 요인

### 2.1 성별

진로결정과 성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진로결정에서 성차가 없다는 연구[14][15]가 있는가 하면 성차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16-18]. 성차가 있다는 연구 중에서도 남성의 진로미결정 정도가 낮다는 연구[16][17]가 있는가 하면 여성의 진로미결정 정도가 낮다는 연구[18]도 있다.

진로결정에서 남녀 간에 성차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들은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특수한 상황이 진로결정의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즉, 남녀의 의사결정과정의 근본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진로결정 과정은 사회화과정의 차이로 인해 조금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19]. 여성은 취업과 관련하여 성차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장벽을 느낄 뿐 아니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장애 때문에 남성에 비해 진로결정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은 자신의 흥미에 대한 판단과 진로결정에서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

고[20], 남학생보다 취업에 대한 결정이 늦으며[21], 진로 및 취업준비 시기도 늦다[22]고 한다.

## 2.2 학년

진로결정은 취업 및 진학 등을 앞둔 특정한 시기적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년과 진로결정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진로결정수준은 학년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5].

정미예(2007)[23]는 4학년의 진로결정수준이 다른 학년에 비해 높음을 확인하였고 정애경[5]은 진로미결정 관련 요인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자 대학생 1학년의 진로미결정 정도가 4학년 학생에 비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단순히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시급성에 따라 선형적으로 진로결정 수준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연구결과들[12][24]도 있다. 여대생의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안세근과 김현욱의 연구(2016)[6]에서는 학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학년이 높다고 해서 더 진로결정수준이 높지도 않았다. 오히려 1학년의 진로결정 수준이 비교적 높았고, 다음으로 3학년, 4학년, 2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1학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구상을 한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결정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대학생활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과 전공의 진로 방향을 이해하면서 점차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6].

## 2.3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academic achievement)란 학교 교육을 통해 획득한 학습결과의 총칭으로, 인지적 영역의 학습결과뿐만 아니라 비인지적 영역의 학습결과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학업성취도는 지식을 포함하여 문제해결력, 흥미, 관심, 가치관, 적응성 등의 측면에서 학습자가 무엇을 배웠다고 느끼는 정도와 같이 넓은 의미로 정의되거나[25][26], 학생들이 학교 교과목에서 얻은 점수와 같이 좁은 의미로 정의되기도 한다[27].

학업성취도와 진로결정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결과

는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28]. 조성연과 이선순의 연구(2006)[29]에서 성인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은 학업성취도와 유의미하게 관련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2.4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major satisfaction)란 진로나 직업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자신이 소속한 전공학과를 다른 대안적 전공들과 비교한 인지적인 평가결과라고 볼 수 있다[29]. 따라서 자신이 현재 소속된 학과와 전공 과정이 자신의 이상이나 미래 진로와 부합하면 전공만족도가 높아진다[30].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이 높아지므로 [31][32], 전공만족도는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공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경우 학업성취가 높고[32],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며, 진로결정 수준이 높았다[31].

## 2.5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college students' adjustment)이란 대학생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대인관계, 정서 또는 학업적 측면에서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학생의 지적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적응력을 발달시키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33]. 대학생활적응은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의 네 영역의 적응 정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33].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들[34][35]은 일관되게 학업, 대인관계, 정서 및 환경적응 등 여러 영역에 있어서 대학생활적응은 진로결정수준과 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6 진로적응성

진로적응성(career adaptability)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일의 세계와 자신이 처한 환경의 요구에 대처하는 준비도로서[8], 직무에 대비하고 수행하는 것과 같은 예

즉 가능한 일뿐만 아니라, 직업 환경의 변화로 유발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준비도이다[36]. 따라서 개인의 생애 동안 일어나는 여러 진로전환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이며, 진로 결정, 직업으로의 전환, 직업적응을 위한 준비도[9]이기도 하다.

진로적응성은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특징에 비추어 대단히 효용성이 높은 능력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 연구를 통해 진로적응성이 다양한 긍정적 진로 변인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즉,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율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고[37], 진로장벽과는 부적 상관[38]을 가진다고 보고되었다. 진로적응성은 직업적 발달과업, 직업전환, 그리고 개인적 외상에 대처하는 자원과 준비, 개인의 직업행동을 조절하는 자기조절 전략적 측면에서도 진로결정수준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9].

### 2.7 진로개발역량

진로개발역량(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이란 기존의 진로교육 또는 진로지도에서 목표로 하던 진로발달 또는 진로성숙의 차원을 넘어, 현대사회의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으로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39].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미래사회에서 자신의 진로를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개발해야 나가야 하는 개인에게 필요한 것은 단계별로 나누어진 과업이 아닌 평생에 걸쳐 스스로 발전시킬 역량이다. 진로개발역량이란 그런 맥락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자기주도성과 전이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40]. 대학생 시기에 진로개발역량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진로개발역량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고[41],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할수록 진로개발역량이 높아지기 때문이다[42]. 또한 선행연구들[1][2][34]은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은 서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진로결정수준이 확고할수록 진로준비행동에 적극적이고 진로결정수준이 낮을수록 제대로 된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로개발역량은

진로결정수준과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도, 충청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673명이다.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로결정 여부와 진로결정 관련 변인들로 구성된 설문지를 대학생 710명에게 실시하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37명을 제외한 67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을 자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학생 287명(42.6%), 여학생 386명(57.4%)이고, 학년별로는 1학년 178명(26.4%), 2학년 219명(32.5%), 3학년 119명(17.7%), 4학년 157명(23.3%)이다. 전공별로는 인문대학 118명(17.5%), 사회대학 91명(13.5%), 상경대학 58명(8.6%), 자연과학대학 79명(11.7%), 공과대학 126명(18.7%), 생명자원과학대학 43명(6.4%), 예·체능대학 84명(12.5%), 보건대학 27명(4.0%), 사범대학 34명(5.1%), 기타 13명(2%)이다.

### 2. 연구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여부’이다. ‘졸업 후의 진로를 결정하였습니까?’라는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1로, ‘아니오’라고 대답한 경우에는 0의 값을 가지도록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의 구체적인 내용과 변수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과 학년은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는데, 성별은 ‘남자’는 1, ‘여자’는 0으로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학년의 경우는 3학년과 4학년을 합쳐 고학년으로, 1학년과 2학년을 합쳐서 저학년으로 하고, 고학년은 1로, 저학년은 0으로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학년은 각 학년별로 각 각 더미변수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다른 변수와 학년의 효과를 명확히 비교하기 위해 고학년과 저학년으로 나누었다. 둘째, 학업성취도는 직전 학기 평점을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셋째,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은 각 각 전공(공부)에 대한 만족도와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을 묻는 단일 문항 5점 Likert척도(1점 매우 불만족, 2점 불만족, 3점 보통, 4점 만족, 5점 매우 만족)에 대한 응답 값을 활용하였다. 넷째, 진로적응성은 ‘대학생 진로적응성 척도’[43]를 활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대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직업세계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로서, 책임감, 목표의식, 창의성, 대인관계, 개방성, 주도성, 직무능력, 긍정적 태도의 8개 하위요인,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척도의 신뢰도는 .94이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5 이다. 다섯째, 진로개발역량은 ‘대학생 진로개발역량 척도’[44]를 활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대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직무능력, 자기관리능력, 창의성, 진로탄력성, 글로벌 능력, 주도성, 대인관계능력, 계획된 우연기술, 문제해결 능력의 9개 하위요인, 총 3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개발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척도의 신뢰도는 .904이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01 이다.

이상의 분석 변수에 대한 요약 설명 및 기술 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에 대한 설명 및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변수명	변수설명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진로결정	진로결정했음=1 진로결정못했음=0	.00	1.00	.74	.47
〈독립변수〉					
성별	남자=1, 여자=0	.00	1.00	.43	.49
학년	고학년(3,4학년)=1 저학년(1,2학년)=0	.00	1.00	.41	.49
학업성취도	직전학기 평점	1.40	4.50	3.39	.47
전공만족도	전공(공부)에 대한 만족도(5점척도)	2.00	5.00	3.47	.81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도(5점척도)	2.00	5.00	3.62	.72
진로적응성	대학생진로적응성 척도(5점척도)평균값	2.05	5.00	3.66	.50
진로개발역량	대학생진로개발역량척도(5점척도)평균값	1.73	5.00	3.44	.41

###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범주형 변수와 연속형 범주로 구성되어 있고 종속변수는 범주형 변수인 이분 변수이므로 이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분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은 독립변수들의 선형결합을 가정하고 응답자가 특정 집단에 속할 확률인 p를 예측하는 모형이다. 즉, 추정된 로지스틱 회귀식에 의해 계산된 확률 값 p가 0.5보다 크면 그 응답자는 특정집단에 귀속되며(사건의 발생), 0.5보다 작을 경우에는 다른 집단에 귀속되는 것(사건의 미발생)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상의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 23을 사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진로결정 집단과 미결정 집단의 차이 분석

본 연구의 독립변인으로 설정된 변인들이 진로를 결정한 대학생 집단과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대학생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범주형 척도인 성별과 학년에는  $\chi^2$  검정을, 연속형 척도인 학업성취도,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진로적응성 그리고 진로개발역량에 대해서는 t-test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진로결정 집단과 미결정 집단의 차이 분석

변수명	빈도(%) / 평균(표준편차)		$\chi^2 / t$	
	결정	미결정		
성별	남	222(77.4%)	65(22.6%)	2.23
	여	279(72.3%)	107(27.7%)	
학년	고학년	223(80.8%)	53(19.2%)	9.93**
	저학년	278(70.0%)	119(30.0%)	
학업성취도	3.43(.46)	3.28(.48)	3.67***	
전공만족도	3.59(.80)	3.13(.75)	6.86***	
대학생활적응	3.67(.71)	3.44(.71)	3.71***	
진로적응성	3.75(.47)	3.38(.47)	9.02***	
진로개발역량	3.53(.38)	3.19(.40)	9.85***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성별은 진로결정 집단과 진로미결정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이 아니었다( $\chi^2=2.23, p>.05$ ).

그러나 성별을 제외한 변인인 학년( $X^2=9.93, p<.01$ ), 학업성취도( $t=3.67, p<.001$ ), 전공만족도( $t=6.86, p<.001$ ), 대학생활적응( $t=3.71, p<.001$ ), 진로적응성( $t=9.02, p<.001$ ), 진로개발역량( $t=9.85, p<.001$ )은 진로결정 집단과 진로미결정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2. 대학생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대학생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표 2]에서와 같이 성별은 진로결정 집단과 미결정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6개 요인의 효과만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대학생의 진로결정 요인 분석 결과

변수	B	S.E	Wals	Exp(B)
학년	.719**	.207	12.033	2.052
학업성취도	.248	.214	1.346	1.281
전공만족도	.633***	.145	19.110	1.883
대학생활적응	-.135	.163	.687	.874
진로적응성	.425	.404	1.104	1.529
진로개발역량	1.648***	.473	12.127	5.197
상수값	-8.725	1.114	60.261	.000
-2LL		636.990		
모형의 $X^2$ (자유도), 유의확률		128.042(6),	.000	
Hosmer-Lemeshow $X^2$ (자유도), 유의확률		5.315(8),	.723	
N		673		

\* $p<.05$ , \*\* $p<.01$ , \*\*\* $p<.001$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각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검토하기에 앞서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본 연구모형의 -2LL 값은 636.990으로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독립변수를 포함하지 않고 상수항만으로 구성된 모형보다 적합도가 128.042만큼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X^2=128.341$ ). 모형의 유의확률은 .000으로서 귀무가설(HO: 모형은 유용하지 않다)을 기각하였다. 즉, 모든 독립변수의 계수가 0(즉, 로지스틱 회귀식이 종속변수를 설명하거나 예측하는데 유용하지 않다)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으므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이 0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모형은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전체적인 적합도(fit)를 검

증하기 위하여 Hosmer-Lemeshow 검정을 실시하였다. Hosmer - Lemeshow 검정에서  $X^2$ 값은 종속변수의 실제치와 모형에 의한 예측치 간의 일치성 정도를 나타내는데, 그 수치가 작을수록 모형의 적합도는 높은 것으로 간주 된다. 본 모형에서  $X^2$ 값은 5.315이고, 유의확률은 0.723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은 종속변수의 실제치와 예측치 간의 차이가 작아 모형의 적합도가 수용할만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 모형이 적합함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와 그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표 3]에서와 같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년( $B= .718, p<.01$ ), 전공만족도( $B= .630, p<.001$ ), 진로개발역량( $B=1.648, p<.01$ )이었으며, 학업성취도( $B= .248, p>.05$ ), 대학생활적응( $B=-.135, p>.05$ ), 진로적응성( $B= .425, p>.05$ )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었다. B값이 유의하고 0보다 클 경우 내부값이 1인 집단(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집단)에 분류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고학년일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진로개발역량이 높을수록 진로를 결정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년의 경우 Exp(B)값은 2.050으로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진로를 결정할 확률이 2배 이상 커진다. 전공만족도의 Exp(B)값은 1.883로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를 결정할 확률이 높는데 전공만족도가 1단위 증가하는 경우 진로를 결정할 확률이 1.9배 커진다. 또한 진로개발역량의 경우 Exp(B)값은 5.197로서 진로개발역량이 커질수록 진로를 결정할 확률이 커지는데 진로개발역량이 1단위 증가하는 경우 진로를 결정할 확률이 5.1배 커진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을 탐색하고 그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진로를 결정한 대학생 집단과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대학생 집단을 나누어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을 탐색하고 이 변인들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그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독립변인들이 진로결정 집단과 진로미결정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범주형 변수는  $X^2$  검정을, 연속형 변수에는 t-test를 실시하였는데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수 즉, 학년, 학업성취도,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진로적응성 그리고 진로개발역량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서 진로결정 집단과 진로미결정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진로결정에서 성차가 있음을 밝힌 연구결과[17][18]와는 불일치하지만 성차가 없음을 밝힌 연구들[14][45]과는 일치한다.

진로결정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시대의 변화로 인한 성역할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 짐작된다. 진로결정에서 성차가 있을 것이라는 논의는 진로를 발달시키는 데 있어 여성은 남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경험을 하고 있으리라는 것을 가정하는데[46], 시대의 변화로 인해 남성에게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사회적 성취를 강조하고 대학 졸업 후 직업세계에 진입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여대생의 진로결정을 촉진시켰을 수 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성별은 진로결정 집단과 진로미결정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이 아니었으므로 이후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투입하지 않았다.

둘째,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진로를 결정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학년, 전공만족도, 진로개발역량이었으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변인은 학업성취도, 대학생활적응, 진로적응성이었다.

학년은 진로를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B=.718, p<.01$ ),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진로를 결정할 확률이 2배 이상 컸다( $Exp(B)= 2.050$ ). 이런 결과는 학년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에 차이가 없었다는 이승민과 장근주의 연구(2014)[47]와는 상이하였으나 진로결정수준은 4학년이 2학년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고향자의 연구(1992)[15]와 일치하였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졸업과 취업이라는 상황적 압박이 증가할 뿐 아니라 진로결정수준이 발달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12] 때문이라 예상된다.

학업성취도는 진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었다( $B=.248, p>.05$ ). 이는 학업성취도와 진로결정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높아진다는 김경주, 김기홍, 박경선[28]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가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학업성취도를 정의하는 방식에서 기인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를 학생들이 학교 교과목에서 얻은 점수로, 기존 연구들보다 좁게 정의하였으므로 학업성취도를 광의로 정의하고 이를 적용한 연구들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전공만족도는 진로를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B=.630, p<.001$ ),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를 결정할 확률이 높는데 전공만족도가 1단위 증가하는 경우 진로를 결정할 확률이 1.9배 커졌다( $Exp(B)=1.878$ ).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전공만족도는 진로결정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선행연구 결과[29][48]와 일치한다. 노정희, 최진영, 장지영[49]은 진로교육과 진로만족도 그리고 진로결정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을 통해 전공만족도가 진로교육과 진로결정의 관계를 완전매개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진로결정을 돕기 위한 진로교육은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못하고 전공만족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진로교육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진로교육이 먼저 전공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48]. 이는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선택을 긍정



적으로 수용하도록 지도하고, 전공의 장점을 부각시켜 전공에 대한 애정을 가지도록 지도하고 더불어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등을 활성화해서 학생들의 전공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들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활적응은 진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었다( $B=-.135, p>.05$ ). 이는 진로결정수준은 대학생활적응의 가장 중요한 예언 변인으로 대학생활적응의 하위변인 중에서도 학업적 적응과 가장 상관이 높아 학업적응의 30%를 설명한다는 장경문의 연구결과(2005)[34]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활적응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력이 적어서라기보다는 다른 변인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라 예측된다.

진로적응성은 진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었다( $B=.425, p>.05$ ). 이런 결과는 진로탐색 및 진로결정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학습자의 진로적응성 수준도 높아진다는 조성연과 홍지영의 연구결과(2010)[50] 그리고 진로적응성은 진로결정수준과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보여준 장계영의 연구결과(2010)[9]와도 상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진로적응성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력이 적어서라기보다는 다른 변인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라 예측된다.

진로개발역량은 진로를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B=1.639, p<.01$ ), 진로개발역량이 커질수록 진로를 결정할 확률이 커지는데 진로개발역량이 1단위 증가하는 경우 진로를 결정할 확률이 5.1배 커졌다( $Exp(B)=5.149$ ). 이런 결과는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개발역량은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다고 밝힌 안선영의 연구결과(2013)[51]와 일치하지만 진로개발역량과 진로결정수준은 각 하위요소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부적상관을 보였다는 이승민과 장근주의 연구결과(2014)[47]와는 불일치한다. 최근 ‘진로개발역량’이라는 개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는 이것이 삶에서 맞닥뜨리는 진로장벽과 장애를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저력’이 되고, 진로개발의 다양한 상황에서 ‘전이 가능한 능력’으로 발휘되기 때문이다[52]. 따라서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미래사회에 적응하여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

로 결정하고 개척해야 나가야 하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진로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몇몇 변인들의 영향 관계만을 비교하여 그 효과를 상호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변인들의 효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관련 변인들의 비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 주로 연구되었던 변인 외에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직업세계를 살아갈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인 진로적응성과 진로개발역량 변인을 연구 변인으로 설정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셋째, 기존 연구는 특정 대학이나 학과의 특성을 반영한 진로결정 수준이나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고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좀 더 다양한 대학과 학과의 학생을 표집하여 대학생들의 보편적인 진로결정 수준과 관련 변인의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년을 고학년 저학년으로 나누어 비교함으로써 각 학년의 차이를 상세히 비교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추후에서는 각 학년을 고려한 연구대상 표집을 통해 각 학년의 특성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이해하고, 더 나아가 학년에 따라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차이가 있는가를 탐색하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1] 황지영, 박재황,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직업교육연구, 제34권, 제5호, pp.73-101, 2015.
- [2] 이재창, 박미진, 김진희,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상담에 대한 기대감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제20권, 제2호, pp.111-127, 2007.

- [3] 이승구, 이재경, “한국 대학생의 취업목표에 따른 취업준비행동 및 첫 직장 만족도 차이,” 진로교육연구, 제21권, 제3호, pp.1-25, 2008.
- [4] V. N. Gordon, “The Undecided Student: A Developmental Perspective,” Personnel & Guidance Journal, Vol.59, No.7, pp.433-403, 1981.
- [5] 정애경, 진로미결정 요인에 관한 국내연구 메타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6] 안세근, 김현욱, “여자 대학생의 진로결정 요인 구조분석,”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제16권, 제7호, pp.339-358, 2016.
- [7] 황현덕, 장선희, 정선화, 이상민, “고등학생의 계획된 우연 기술 수준에 따른 진로포부와 직업탐색행동의 관계 탐색,” 청소년상담연구, 제20권, 제2호, pp.193-210, 2012.
- [8] D. E. Super and E. G. Knasel, “Career development in adulthood: Some theoretical problems and a possible solution,”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ing, Vol.9, pp.194-201, 1981.
- [9] 장계영, 대학생 진로적응성 척도 개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10] 임언, “녹색진로교육이 필요하다,” e-HRD Review, 제12권, 제11호, pp.1-24, 2009.
- [11] 이민선, 이윤정, 문희강, 이예영, “서울지역 의류학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제34권, 제11호, pp.1870-1879, 2010.
- [12] 김봉환,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13] 임은미, 장선숙, “인터넷 활용 진로정보탐색 프로그램의 즉시적 효과와 지속적 효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교육 심리연구, 제18권, 제4호, pp.139-143, 2004.
- [14] N. E. Betz and K. K. Voyten,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46, pp.179-180, 1997.
- [15] 고향자, 한국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16] B. W. Westbrook, J. O. Cutts, S. S. Madison, and M. A. Arcia, “The validity of Crites’ model of career matur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16, pp.249-281, 1980.
- [17] 박수길,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개인 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18] K. M. Taylor and J. Pompa, “An examination for the relationships among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career salience, locus of control and vocational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37, No.1, pp.17-31, 1990.
- [19] 유지선, 여대생의 진로미결정과 애착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20] 민무숙, 허현란, 김형만, “여대생의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위한 대학의 지원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2.
- [21] 신선미, “성별에 따른 청년층의 진로선택과 취업준비의 차이 - 여성청년층을 위한 진로정책검토 청년패널 심포지엄,”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2004.
- [22] 민무숙, “여성 커리어 개발과 대학 취업지원의 관계,” 취업진로연구, 제1권, 제1호, pp.77-107, 2011.
- [23] 정미예, 대학생의 진로 장애 지각, 진로 신화,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발달의 구조적 분석,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24] 박재황, 대학생의 내·외적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포부, 진로결정 수준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25] 백순근, “학업성취도와 관련되는 여러 변인,” 교육진흥, 제4권, pp.62-69, 1996.
- [26] 신세호, 교수요인과 학업성취, 교육출판사, 1983.
- [27]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학 용어사전, 학지사, 2006.

- [28] 조성연, 이선순, “성인대학생의진로결정수준및 진로준비행동이학업성취도에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제19권, 제1호, pp.127-140, 2006.
- [29] 이형룡, 박슬기, “호텔, 외식, 관광 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전공만족도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외식경영연구, 제13권, 제1호, pp.79-105, 2010.
- [30] 강승희, “공학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효능감 및 진로 태도성숙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제29권, 제3호, pp.291-307, 2010.
- [31] 김상진, 김종걸, “경호 관련 학과 대학생의 전공만족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허리서치, 제18권, 제5호, pp.53-63, 2007.
- [32] 이경아, 유나현, 이은정, 전주연, 이기학, “학습성격 유형 및 전공만족도에 따른 학업성취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6권, 제1호, pp.107-121, 2004.
- [33] R. W. Baker and B. Siryk, “Measurability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31, pp.179-189, 1984.
- [34] 장경문,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제6권, 제1호, pp.185-196, 2005.
- [35] 황매향, 박혜영, “대학생의 진로발달과 학교적응도의 관계,” 직업능력개발연구, 제12권, pp.157-176, 2005.
- [36] M. L. Savickas, “Career adaptability: An integrative construct for life-span, life-space theor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45, pp.247-259, 1997.
- [37] 성소연, 배성아,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율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적응성 간의 구조적 관계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22권, 제9호, pp.277-299, 2015.
- [38] 손은령, 이순희, “대학생의 낙관성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제25권, 제3호, pp.181-199, 2012.
- [39] 임효신, 정철영, “중학생 진로개발역량 검사도구 개발,” 진로교육연구, 제28권, 제4호, pp.107-137, 2015.
- [40] 김현순,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 및 교육요구도 차이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7권, 제2호, pp.509-520, 2017.
- [41] 최숙현,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태도 성숙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42] 류재윤, 이유경,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제9권, 제4호, pp.99-116, 2012.
- [43] 장계영, 김봉환, “대학생 진로적응성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제12권, 제2호, pp.539-558, 2011.
- [44] 김현순, “대학생 진로개발역량 척도 개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8권, 제8호, pp.103-127, 2018.
- [45] S. H. Osipow, G. C. Carney, and A. Barack, “A scale of educational 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9, pp.233-243, 1976.
- [46] N. E. Betz and L. F. Fitzgerald, *The career psychology of woman*, Orland, FL : Academic Press, 1987.
- [47] 이승민, 장근주, “음악대학 학생의 진로탐색경험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개발역량의 상관관계,” 음악교육연구, 제43권, 제2호, pp.47-65, 2014.
- [48] 강영숙, 이은정,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들의 전공 만족도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전북 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15권, pp.1-22, 2006.
- [49] 노정희, 최진영, 장지영, “관광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경험한 진로교육, 전공만족도, 진로결정상태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관광학연구, 제39권, 제7권, pp.123-140, 2015.
- [50] 조성연, 홍지영, “성인 학습자의 인구학적 변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의 관계 연구,” 상담학연구, 제11권, pp.1099-1115, 2010.

[51] 안선영, *미술대학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과 진로결정수준의 상관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52] 박신영, 이동형, “진로결정수준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조절효과,” *직업교육연구*, 제32권, 제1호, pp.23-38, 2013.

### 저 자 소 개

김 현 순(Hyun-Soon Kim)

정회원



- 1985년 2월 : 서울대학교 가정대학(가정학사)
  - 1988년 2월 :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 석사)
  - 2008년 2월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교육학 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교양교육대학 교양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진로상담, 성상담, 학교상담, 노인상담